

# 공간 미스매치 실업과 지역노동시장권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

남기찬\*\*

## Analysis of Spatial Mismatch Unemployment and the Efficient Local Labor Market Areas\*

Nam, Kichan\*\*

**국문요약** 공간적 미스매치 문제는 수요부족형 실업문제와는 달리 기업의 노력과 국가경제의 회복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우며, 근본적으로 공간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구조적 실업, 특히 공간적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간적 미스매치가 전체 실업 중에 차지하는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공간 미스매치의 실태에 대해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간미스매치 문제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지역노동시장을 직종별로 획정하고, 이러한 지역노동시장이 공간 미스매치를 개선하는데 있어 효율적인지를 검토함으로써 이의 효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일자리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 지역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 외에도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공간적 매칭 등 다차원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구조적 실업, 공간 미스매치, 지역노동시장권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assess the phenomenon of structural unemployment, with a specific emphasis on unemployment resulting from spatial mismatch, while also exploring potential solutions. Spatial mismatch unemployment presents a unique challenge distinct from unemployment stemming from demand deficient, thus requiring a more multifaceted approach beyond the efforts of individual businesses and national economic recovery policy. T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spatial mismatch, this research seeks to quantify its contribution to overall unemployment. Additionally, we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local labor markets, a prominent mechanism for alleviating spatial mismatch, categorized by occupation, to assess their effectiveness for addressing this issue. Through this analysis, our study advocates for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policies within the realm of job-related initiatives, including spatial alignment through inter-regional collaborations, in conjunction with region-specific policies and strategies for job creation.

**Key Words:** Structural Unemployment, Spatial Mismatch, Local Labor Market Areas

\* 본 연구는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주저자, 교신저자: kcnam@krihs.re.kr)

## 1. 서론

실업 문제는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는 핵심적인 이슈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적 위기를 경제상황과 연계하여 논의하는 경우에도 실업률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가 등장하는 것은, 이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당사자가 실업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이유는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정책적인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실업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노동경제학 등 다수의 이론서에서는 다양한 실업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 언급되는 것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여력의 감소(수요부족)이다(Borjas, 2015: 160). 즉, 일자리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에 대한 문제이다. 다수의 일자리정책이 이른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 어떠한 정책 당사자든 일자리 정책의 핵심을 ‘일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두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 18-40).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창출 정책 이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mismatch)에 의한 실업 또한 깊은 관심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은 ‘수요부족’이라는 단어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 및 지역경제의 회복, 이에 따른 민간기업의 일자리의 창출의 노력으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은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간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사회·경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더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Borjas, 2015: 543).

그간 구조적 실업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과거로부터 수행되어 왔으며, 구조적 실업이 수요부족으로 인한 실업보다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함의점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 또한 다수 존재한다(Osberg, Lars and Zhengxi Lin, 2000; 유경준, 2001; 하태정, 2005; 김현재·최영준,

2015; 김을식, 2013; 김을식 외, 2012; 장재호, 2010; 이성균, 2015). 이와 같이 구조적 실업은 실제 발생되는 실업의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실업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직업·성별·연령 등 구직자가 원하는 직업의 특성과 구인기업이 원하는 구직자의 특성 간에 발생하는 직종간, 숙련수준 간 미스매치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직업교육, 지원금 등 제도적 측면에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와 대책은 그 자체로 유의미한 접근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간적인 실업의 차이, 더욱 근본적으로는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에서의 구직과 구인의 차별적인 공간 분포인 ‘공간적 미스매치’(spatial mismatch)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 이외에 공간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spatial mismatch unemployment)유형에 대해 관심을 갖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일자리·실업의 문제를 수요부족에 의한 문제뿐 아니라, 구조적 실업, 특히 직종에 따른 구직-구인 간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지역노동시장권역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 2. 공간 미스매치의 실업의 정의와 중요성

### 1) 지역노동시장(Local Labor Market)

‘노동시장(Labor Market)’이란 노동력을 상품으로 하여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노동력의 공급(Supply)은 경제활동인구가 직업을 찾아 효용을 결정하는 ‘구직’의 과정이고, 노동력의 수요(Demand)는 기업이 활동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노동자를 찾는 ‘구인’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영역을 수반하게 된다. 노동력은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공간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통근'의 행위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공간이 결여된 '노동시장'은 가상의 개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적 범역내의 노동시장'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노동시장(Local Labor Market)'이란, 특정한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공급하는 노동자와, 노동력이 필요한 사용자의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Casado-Diaz, 2000: 843).

## 2) 실업의 유형과 구조적 실업

노동시장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실업(Unemployment)과 관련한 문제로,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구인과 구직)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업은 크게 노동수요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수요부족 실업'뿐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시기와 주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미스매치에 의한) 실업' 등을 들 수 있다.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은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구직자들이 다양한 구인기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구직자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구직자가 기존에 근무하는 기업에서 사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즉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마찰적 실업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매칭의 과정에서 일정 기간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Borjas, 2015: 543). 마찰적 실업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실업'의 유형에 속하긴 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 이유는 구직자가 새로운 구인기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자원의 재배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Borjas, 2015: 543). 이러한 마찰적 실업의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상호

정보를 제공하는 매칭시스템의 역할제고 등을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마찰적 실업과 다르게 구조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Structural Mismatch Unemployment)은 그 속성과 해소대책에 있어 보다 주의가 필요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김현재·최영준, 2015). 실업은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뿐 아니라, 국가나 지역이 가지는 매칭 효용성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특히 구조적 실업이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보다 더욱 큰 우려가 되는 이유는 국가나 지역경제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구직과 구인의 총량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구인건수가 구직건수 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실업은 기존의 일자리 정책의 큰 축인 '일자리 창출'로 해소하지 못하는 부문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업이 본질적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에 발생하는 일자리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많은 정책당사자들은 구조적 실업의 문제 역시 일자리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많은 학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조적 실업의 대표적인 유형이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숙련수준의 불일치'(Skills Mismatch)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 실업의 단편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구조적 실업 가운데,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 간에 공간적인 불일치로 발생하는 실업, 이른바 '공간적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은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 3) 공간적 미스매치 실업

공간적인 미스매치는 Kain(1968)이 '공간적 미스매치 가설'(Spatial Mismatch Hypothesis: SMH)을 제안한 이후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공간적 미스매치 가설의 기본적인 논의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간에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공간적인 불일치가 발생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Gobillon et al., 2007; Ihlanfeldt, 2006 등). 노동자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거지

선택에 제약을 받고, 이로 인해 직장으로서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시의 외연적 확장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도시중심부에서 점차 외곽으로 확산됨에 따라 원활히 노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제약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형식화하면, 노동자는 지역의 매력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 집중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숙련노동력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이정현, 2015: 17), 노동수요자(기업가)는 서울 등 대도시의 높은 지가와 그에 따르는 집적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자리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구직자들은 정주환경이 양호한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대도시에서는 구직난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구인난이 발생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존재하게 된다. 구조적 실업의 대표적 유형인 숙련수준의 불일치 문제도 사실상 이러한 공간적 불균형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될 수 있다.

구인난을 겪는 지역의 주된 산업·업종의 형태는 비교적 영세한 중소기업, 쇠퇴산업 등이 집중되어 있어, 구직자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직업의 형태로 인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종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도심에서 이격되어 있음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정주환경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기업여건과 지역여건의 선-후의 문제를 분명히 따질 수는 없겠지만, 구인난이 존재하는 지역과 매력도가 낮은 지역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자리의 문제가 지역적 문제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의 현상이 심화되는 경우, 양극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로 진전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적 미스매치의 현상은 노동자 혹은 기업의 한쪽 측면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동력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서의 구조적 해소방안을 고려해야 할 양측면의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의 다양한 연구에서는 공간적 미스매치로 실업의 해소를 위한 접근성의 개선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상황이다(Patacchini & Zenou, 2005; Taylor & Ong,

1995; Lyons & Reid Ewing, 2021; Li et al., 2021). 국내 연구의 경우, 공간적 미스매치 자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진 반면, 공간적 미스매치가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실업의 문제와의 해소를 위한 광역적 담론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이정현, 2015; 이상호, 2011 등).

### 3. 우리나라 공간 미스매치 실업의 현황

#### 1) 실업의 유형

##### (1) 본 분석에서의 실업유형

실업이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에서는 실업의 유형을 크게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으로 구분하였다. 앞서 이론적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은 노동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발생하는 실업이며,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얻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으로 비교적 단기적인 실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외에 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인데, 구조적 실업은 크게 직종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직종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간에 매칭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미스매치로서 직종간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직종 간 미스매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공간적 미스매치는 구직자가 거주하는 공간과 일자리의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스매치로서 공간 간의 이동제약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공간적 미스매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 (2) 실업유형 분해 분석 방법

이러한 실업을 유형에 따라 분해(Decomposition)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Armstrong and Taylor(1981)의 실업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실업(U)은 수요부족 미스매치(Ud), 마찰적 미스매치(Uf), 구조적 미스매치(Us)로 나뉘며, 이의 총합이 전체 실업을 결정함을 가정하고 있다.

$$U = Ud + Uf + Us \quad \text{식(1)}$$

여기에서 전체 실업(U)은 전체 구직자수(Lp)에서 실제 취업건수(E)를 제외한 나머지 분으로 볼 수 있다.<sup>1)</sup>

$$U = Lp - E \quad \text{식(2)}$$

수요부족 미스매치(Ud)는 식(3)과 같이 구직자수(Lp)에서 구인인원(Le)을 차감한 분으로 산정된다.

$$Ud = Lp - Le \quad \text{식(3)}$$

구조적 미스매치는 j지역에서의 공간적 미스매치(Usj), i직종에 대한 직종 미스매치(Usi), j지역의 i직종에 대한 공간-직종 미스매치(Usji)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간적 미스매치는 전체 구직가능건수(Employment Potential: EP)에서 지역별 구직가능건수를 합한 값을 차분하여 산정하고, 직종 미스매치는 전체 구직가능건수에서 직업별 구직가능건수를 합한 값을 차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공간-직종 미스매치는 전체 구직가능건수에서 공간별, 직종별 구직가능건수를 합한 값을 차분하여 산정이 가능하다.<sup>2)</sup>

$$EP = \min(Lp, Le) \quad \text{식(4)}$$

$$Usj = EP - \sum EPj \quad \text{식(5)}$$

$$Usi = EP - \sum EPi \quad \text{식(6)}$$

$$Usji = EP - \sum EPij \quad \text{식(7)}$$

마찰적 미스매치는 실제적으로는 직종, 지역 간 미스매치가 존재하지 않으나 구직시기의 불일치 등에 의해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인 만큼 일반적으로 전체 실업에서 수요부족미스매치, 구조적 미스매치를 제외한 값으로 산정되나, 본 연구에서는 마찰적 미스매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 (3) 분석단위 및 분석자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 유형분해 분석을 위해서는 제약이 되는 공간 및 직종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먼저 분석의 공간단위는 가장 기초가 되는 226개의 시·군·구를 활용하였다. 다만,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229곳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시·도 측면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를 해당 시·도 및 국가로 합산하여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직종의 구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 워크넷(WORKNET)에서 제공하는 「취업알선직업분류」(2018년 개정)의 기준에 준용하여 2015~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경우 2018년 이전-후의 분류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2018년 기준으로 매칭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주요한 자료는 구직과 구인 자료이다. 이 ‘구직건수’는 일반적인 ‘구직자수’와는 다르게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 구직건수는 한 명의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서 중복 계산 될 수 있다.

〈표 1〉 본 연구에서의 직업 분류 명칭

취업알선 직업분류 대분류(1 digit)	본 연구에서의 분류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0. 경영·사무직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 연구·기술직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 교육·법률직
3. 보건·의료직	3. 보건·의료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 예술·방송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 숙박·음식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 영업·판매직
7. 건설·채굴직	7. 건설·채굴직
8. 설치·정비·생산직	8. 설치·생산직
9. 농림어업직	9. 농림·어업직

자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19. 취업알선직업분류 2018 매뉴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구직-구인자료는 일반적인 한국고용직업분류(고용정보원), 한국표준직업분류(고용노동부)와 달리 노동력의 구인과 구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만큼, 별도의 직종분류인 「취업알선직업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취업알선직업분류는 분류의 위계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2-digit), 소분류(3-digit), 세분류(4-digit), 세세분류(6-digit)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인 10개 분류에 대해 지역단위에서 구직-구인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활용한 직종의 분류명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2) 수요부족과 구조적 미스매치 분석 결과

실업유형에 따른 전국적인 실업의 규모를 검토하면 <표 2>와 같다. 먼저 2015~2019년간 국내 일자리의 수요부족 현황은 약 157~193만에 이르고 있으며 이의 비중은 구직건수 대비 약 39~48% 수준에 이른다.

이를 통해 수요부족으로 인한 구직자의 구직제한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으며, 여타의 실업요인 중에서도 일자리의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한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적인 미스매치는 크게 직종, 공간, 공간-직종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2019년 기준 직종 미스매치는 1만 3천건 수준으로 전체 구직건수 대비 0.3%, 공간 미스매치는 13만건으로 구직건수 대비 3.2%에 그치는 반면, 같은 시기의 공간-직종 미스매치는 약 35만 수준으로, 이의 비중은 구직자 대비 약 8.8%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구직자 대비 약 8.8%에 이르는 구직자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구조적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제시한 것과 같이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수요부족 실업이 약 47%가량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공간-직종 미스매치는 8.8%에 그치고 있어,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에 비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치부

<표 2> 실업유형별 미스매치 총량 및 구직대비 비중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요부족	구직(건)	4,404,948	4,466,941	4,802,942	4,009,468	4,058,236	
	구인(건)	2,620,469	2,774,773	2,852,549	2,436,777	2,128,696	
	수요부족(구직-구인)(건)	1,784,479	1,692,168	1,950,393	1,572,691	1,929,540	
	구직건수 대비(%)	<b>40.5</b>	<b>37.9</b>	<b>40.6</b>	<b>39.2</b>	<b>47.5</b>	
구조적	직종 미스매치	전국 취업가능건수(건)	2,620,469	2,774,773	2,852,549	2,436,777	2,128,696
		직종별 취업가능건수 합(건)	2,584,587	2,701,549	2,802,661	2,287,207	2,115,566
		직종 미스매치 건수(건)	<b>35,882</b>	<b>73,224</b>	<b>49,888</b>	<b>149,570</b>	<b>13,130</b>
		구직건수 대비(%)	0.8	1.6	1.0	3.7	0.3
	공간 미스매치	전국 취업가능건수(건)	2,620,469	2,774,773	2,852,549	2,436,777	2,128,696
		공간별 취업가능건수 합(건)	2,359,314	2,497,877	2,589,836	2,225,159	1,997,515
		공간적 미스매치 건수(건)	<b>261,155</b>	<b>276,896</b>	<b>262,713</b>	<b>211,618</b>	<b>131,181</b>
		구직건수 대비(%)	5.9	6.2	5.5	5.3	3.2
	공간-직종 미스매치	전국 취업가능건수(건)	2,620,469	2,774,773	2,852,549	2,436,777	2,128,696
		공간-직종별 취업가능건수 합(건)	2,086,011	2,171,426	2,232,945	1,922,171	1,770,520
		공간-직종 미스매치(건)	<b>534,458</b>	<b>603,347</b>	<b>619,604</b>	<b>514,606</b>	<b>358,176</b>
		구직건수 대비(%)	12.1	13.5	12.9	12.8	8.8

자료: 고용행정통계. 구인구직/취업현황을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표 3〉 시·도별 실업유형의 총량 및 구직대비 비중

구분	2019			
	수요부족		공간-직종 미스매치	
	절대량 (명)	구직대비 (%)	절대량 (명)	구직대비 (%)
서울특별시	332,182	51.7	67,086	10.4
부산광역시	214,121	62.8	11,937	3.5
대구광역시	131,331	64.7	590	0.3
인천광역시	165,855	61.3	4,073	1.5
광주광역시	62,031	54.3	1,571	1.4
대전광역시	76,166	73.7	347	0.3
울산광역시	65,559	60.8	2,484	2.3
세종특별자치시	8,862	39.5	2,823	12.6
경기도	486,100	44.8	104,270	9.6
강원도	33,626	29.7	22,009	19.4
충청북도	14,661	12.7	29,330	25.4
충청남도	41,394	28.9	17,732	12.4
전라북도	49,294	33.1	16,072	10.8
전라남도	12,938	11.3	33,093	28.8
경상북도	87,689	42.3	16,342	7.9
경상남도	136,485	47.2	26,936	9.3
제주도	11,246	31.2	1,481	4.1
합계	1,929,540	47.5	358,176	8.8

자료: 고용행정통계. 구인구직/취업현황을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시·도별로 구분한 〈표 3〉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상대적인 중요성에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 가장 큰 공간-직종 미스매치 비중을 보이는 지역은 전라남도로 전체 구직자 중 약 11%가 수요부족 실업임에 비해, 전체 구직자 중 약 29%가 공간-직종 미스매치로 인해 취업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수요부족 실업이 12.7%로 나타난 반면, 공간-직종 미스매치가 25.4%로 나타나고 있어 수요부족 실업보다 더 큰 비중을 보였다. 반면에 대전광역시는 전체 구직자 중 약 74%는 수요부족임에 비해, 전체 구직자 중 약 0.3%에 달하는 적은 비중만이 공간-직종 미스매치로 인한 제약으로 나타났다.

## 4. 지역노동시장의 형성과 미스매치 감소 효과 검토

### 1) 지역노동시장권의 의미

공간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이 중에서도 광역적 접근성 확보를 통한 공간적 미스매치 개선의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우리는 앞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매칭하는 시장을 ‘노동시장’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이 공간적 범역 내에서 수반되는 것을 ‘지역노동시장’이라 정의하였다. 여기에서는 광역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공간적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범역인 ‘지역노동시장권(Local Labor Market Area: LLMA)’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초 지역단위로 존재하는 공간적 미스매치는 직접적으로 통근이 가능한 인접지역의 구직자, 구인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즉, 구직자가 다수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에서 구인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는 기업지역으로 통근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지역별로 존재하는 불균등도가 권역단위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근가능권역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노동시장권’의 존재는 공간적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능적 권역(functional areas)’으로써 의의를 가진다.

과거 국내·외 연구에서의 지역노동시장권은 그 자체를 확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확정된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로서 활용하여 권역내의 일반적인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Smart, 1974; Lever, 1979; 1980; Combes and Openshaw, 1982; Owen and Green, 1989; OECD, 2002; 박진희, 2005; 이상호, 2008; 김을식·좌승희, 2009; 윤윤규 외, 2012). 즉, 지역노동시장권을 확정하는 자체가 연구의 목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노동시장권은 구인과 구직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역으로서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지역노동시장권의 확정이 개별 지자체

측면의 공간적 미스매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동되는지, 어느 정도나 공간적 미스매치 완화에 기여하는지, 혹시 공간적 미스매치를 완화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부분이나, 지역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의 확정 전·후의 공간적 미스매치의 증·감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지역노동시장권을 활용한 공간적 미스매치 개선의 효율성 검토 및 유연한 확장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본 장에서는 앞서 시·군·구 단위에서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개별 지자체 측면에서의 공간적 미스매치가 실제 현상을 반영한 지역노동시장권역에서 얼마나 해소되는지를 주목하고자 하였다.<sup>3)</sup> 일반적으로 더 넓은 공간범역을 가지는 경우 공간적인 불균등이 낮게 나타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권역 확정이 반드시 불균등을 완화할 것인지, 불균등이 높은 지역이 더 넓은 권역을 확정하는지, 직종에 따른 차이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확정 전·후의 공간 단위의 비교를 통한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방법은 지역노동시장권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 본질적인 차이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 2) 지역노동시장권 확정의 방법과 결과

지역노동시장권 확정을 위한 방법은 Coombes et al.,(1986)의 지역노동시장권 확정 방법을 변용하여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1단계 자급률의 검토, 2단계 단일 노동시장권 미충족 지역의 선정, 3단계 병합대상지의 선정 및 병합, 4단계 모든 권역이 자급률을 충족할 때까지 반복작업 및 5단계 보정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통근패턴을 통해 지역의 자급률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으로서 확정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타 지역과 병합을 통해 지역노동시장권으로서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자급률 지수인 ‘노동수요자급비율(Labor Demand Self-Containment: LDSC)’과 ‘노동공급자급비율

(Labor Supply Self-Containment: LSSC)’에 대해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권역에 한하여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으로서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한 자급률은 수요, 공급 모두 75%가 넘는 경우 단일 지역노동시장권으로 확정하고, 75%에 미달하는 지역의 경우 75%가 넘을 때까지 타 지역과 병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단일 노동시장권의 충족여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역은 타 지역(권역)과의 병합을 통해 자급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어떠한 미충족 지역(From)을 또 다른 어떠한 지역(To)에 매칭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미충족지역을 대상지는 Casado-Díaz,(2000: 845-855)가 제안한 이른바 X-equation의 산식을 활용하여 선별하였다.<sup>4)</sup>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선별된 미충족 지역을 어떠한 지역에 붙여서 하나의 병합지로 만들 것 인가에 대한 과정으로 여기에서는 미충족지역과 가장 강한 통근강도(Relative Strength: RS)를 갖는 지역을 선별하여 매칭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여기서의 통근강도는 Casado-Díaz,(2000: 845)가 제안한 산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확정된 지역노동시장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자급률을 검토하는 첫번째의 과정을 다시 수행한다. 이의 과정을 통해 모든 대상 지역이 자급률 검토 기준을 만족할 때 까지 반복수행하여 모든 지역의 지역노동시장권 확정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보정의 단계로, 설정된 지역노동시장권의 각각의 시·군 중 공간적인 인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이 나타나는 경우 기 설정된 지역노동시장권에서 문제의 지역을 분리하여 인접한 지역노동시장권 중 다음으로 강도가 강한 지역에 할당하는 등 보정작업을 진행하여 최종적인 지역노동시장권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5단계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지역노동시장권을 전체 및 직종별로 확정하였다.<sup>5)</sup>

본 연구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sup>6)</sup>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는 반기의 주기를 갖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의 분석단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산업·직업에 대한 정보와 주거지 및 직장 정보에 대한 위치를 행정구역 단위로 제공하고 있어 본 분석을 진행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에서의 공간구성은 전국 162개 시(특·광역시 포함)·군으로 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종분류에 대한 보정작업이 필요하였는데,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주요한 직종분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취업알선직업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상이한 두 분류체계를 본 연구에서의 분류체계인 10대 분류로 매칭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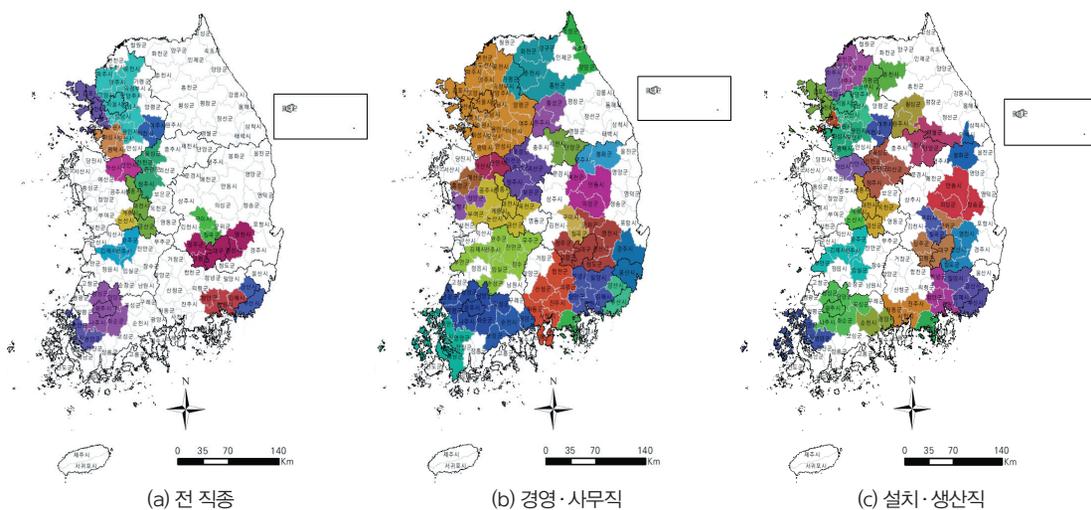
전체 직종 및 주요한 직종인 경영·사무직, 설치·생산직에 대한 지역노동시장권의 결과는 <그림 1>과 같으며, 직종별 확정된 지역노동시장권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sup>7)</sup>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획정한 결과 2개 이상의 시·군이 병합된 지역노동시장권은 15개, 단일 시·군 단위에서 형성된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는 99개로 전국에 총 114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된다. 이를 직종별로 나누어 검토하면, 지역노동시

장권은 직종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 및 획정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가 적은 직종은 연구·기술직, 교육·법률직, 경영·사무직 등으로 이들 지역노동시장권은 다수의 시·군이 병합되어 권역이 확정되므로 비교적 광역적인 권역으로 구성됨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다수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된 직종은 농림·어업직, 숙박·음식직, 영업·판매직 등으로 비교적 소규모 지역노동시장권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지역노동시장권에 따른 공간 미스매치 감소효과 검토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의 획정결과를 단순히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활용하였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확정된 지역노동시장권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추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노동시장권은 구직자가 구인기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적 권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역노동시장권은 공간적으로 발생하는 구직-구인 미스매치를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획정되리라 예상하였다. 이



(그림1) 전 직종 및 주요 직종에 대한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결과

주: 색이 칠해져 있는 지역은 1개 이상의 시·군이 합쳐진 지역노동시장권을 의미.  
 자료: 저자 직접 작성.

〈표 4〉 직종별 형성된 지역노동시장권 현황

구분	최종 지역노동시장권 개수			공급 자금률 (%)	수요 자금률 (%)	권역별 평균 고용자수 (명)
	합계	2개 이상 시·군 병합 지역노동시장권	단일 시·군 지역노동시장권			
전체 직종	114	15	99	93.6	89.0	229,356
0. 경영·사무직	66	23	43	93.0	88.0	83,271
1. 연구·기술직	45	23	22	93.6	93.3	31,813
2. 교육·법률직	57	27	32	92.7	88.0	24,772
3. 보건·의료직	93	31	64	92.9	89.6	15,646
4. 예술·방송직	85	24	68	94.9	95.1	6,943
5. 숙박·음식직	136	15	121	93.4	91.5	32,239
6. 영업·판매직	115	16	99	93.8	91.9	27,657
7. 건설·채굴직	92	17	78	91.8	90.3	11,235
8. 설치·생산직	96	27	69	91.6	88.7	52,435
9. 농림·어업직	147	11	136	96.6	96.1	13,376

자료: MDIS,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하반기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분석단위인 시군별 상대적 공간적 미스매치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된 뒤, 지역노동시장권역이 구성된 이후의 공간적 미스매치를 비교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직종별 공간적 미스매치의 상대적 정도를 각 권역별로 측정하는 방법은 Jackman and Rogers(1987)의 방법을 변용하여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특정 지역노동시장에서 절대적인 수치에서의 구직과 구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대비 특정 권역에서의 구인비중과 구직비중이 차이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직-구인비중이 동일한 경우를 효율적인 노동시장(efficient labor market)으로 정의하였다. 이의 개념은 비교적 단순한데, 특정 직종의 전국 구인건수 및 구직건수를 각 지역별로 비중을 계산하고, 이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의 값은 숫자가 크게 산출될수록 구인과 구직이 불균등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공간적 미스매치 지수'(SM<sub>ij</sub>)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SM_{ij} = |u_{ij} - v_{ij}| \times 100 \quad \text{식(8)}$$

여기서  $u_{ij}$ 는 직종  $i$ 의 지역  $j$ 의 구직비중( $u_{ij} = U_{ij}/U_i$ ),  $v_{ij}$ 는 직종  $i$ 의 지역  $j$ 의 구인비중( $v_{ij} = V_{ij}/V_i$ )을 의미하며,  $U$ 는 구직규모,  $V$ 는 구인규모를 의미한다.

이 수식을 각 직종별로 크게 두 가지 공간단위에 적용하여 값을 산출하였는데, 첫 번째는 확정된 지역노동시장권역 포함된 162개의 각 시·군별 개별적인 값을 산출하여 시·도 단위로 합산하였다. 이는 지역노동시장권역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의 공간 미스매치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지역노동시장권역을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해당 권역내의 공간 미스매치 값을 한번에 산출하여 값을 산출하였는데, 이는 지역노동시장권 내에서는 구직-구인을 위한 노동시장이 원활이 작동함을 전제하여 산출한 값이다. 이 경우 광역도 간의 경계를 넘어 타 광역도의 지역노동시장권에 포함되는 경우 중심도시가 있는 해당 광역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를 통해 제시하였다.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 전체 시·도 중 공간미스매치 값이 두드러지게 산출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미스매치 값의 합계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직, 건설·채굴직, 설치·생산직 등이 높은 공간미스매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단일 시·군에 비해 지역노동시장권을 확정하는 경우 공간적 미스매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다음

〈표 5〉 지역노동시장권 형성 전-후 공간적 미스매치 값 및 변화량

구분		전체	0경영· 사무직	1연구· 기술직	2교육· 법률 직	3보건· 의료직	4예술· 방송직	5숙박· 음식 직	6영업· 판매 직	7건설· 채굴직	8설치· 생산직	9농림 어업직
지역 노동 시장 형성 전 (각 시· 군 값의 합산)	서울특별시	10,942	16,815	16,022	6,353	9,965	20,428	12,698	17,598	21,374	5,729	6,776
	부산광역시	3,837	4,223	4,410	2,143	2,788	2,650	2,933	6,201	6,397	6,100	3,762
	대구광역시	1,693	1,386	0,964	1,285	3,110	1,089	1,951	1,974	2,023	2,551	2,455
	인천광역시	2,071	2,393	2,465	1,318	0,951	2,080	2,357	3,452	2,474	3,942	2,484
	광주광역시	0,403	0,702	1,384	1,005	1,797	1,593	0,693	0,464	1,807	1,027	0,551
	대전광역시	1,269	0,835	1,593	1,156	1,294	0,797	1,234	0,895	2,328	1,407	1,006
	울산광역시	0,873	1,074	0,986	0,620	1,801	0,629	1,264	0,769	1,347	2,040	2,671
	세종특별자치시	0,085	0,231	0,030	0,258	0,284	0,169	0,732	0,179	0,108	0,023	0,172
	경기도	10,623	12,165	10,943	9,600	6,409	9,800	7,950	12,079	12,091	20,513	18,750
	강원도	1,309	1,186	0,717	1,004	1,441	2,094	4,899	0,766	2,693	0,734	7,245
	충청북도	2,034	1,145	1,231	1,980	1,348	1,359	2,455	0,954	1,706	3,394	2,241
	충청남도	1,388	0,930	2,519	1,500	1,102	0,774	1,359	0,406	3,639	2,015	8,611
	전라북도	1,437	0,952	1,255	3,556	2,257	2,839	2,749	0,761	1,675	1,998	3,796
	전라남도	1,963	1,693	3,275	2,807	1,848	2,649	3,313	1,211	3,625	2,423	11,229
	경상북도	1,642	1,888	1,970	2,600	3,122	2,059	2,830	2,259	2,757	3,088	4,990
	경상남도	2,309	2,547	1,386	3,410	3,748	1,989	3,212	2,315	4,682	5,603	11,756
	제주도	0,277	0,197	0,646	0,503	1,115	1,318	0,525	0,209	0,190	0,042	2,171
합계	44,155	50,360	51,799	41,099	44,379	54,315	53,155	52,493	70,916	62,628	90,666	
지역 노동 시장 권역 값	서울특별시	3,112	1,140	8,497	6,349	1,085	17,960	3,731	3,671	10,724	4,682	6,892
	부산광역시	2,488	2,102	1,978	1,491	0,427	0,453	2,742	4,992	5,597	1,663	2,996
	대구광역시	1,371	0,849	0,573	0,078	2,247	1,155	2,082	1,907	1,901	1,652	2,455
	인천광역시	1,556	0,000	0,000	2,177	1,543	0,000	3,906	0,686	0,000	1,144	0,769
	광주광역시	0,297	0,577	1,717	1,316	0,325	0,389	0,023	0,114	0,910	0,273	0,000
	대전광역시	1,124	0,647	1,353	1,017	3,042	2,303	1,234	0,763	0,004	0,913	0,000
	울산광역시	0,673	0,816	0,066	0,620	0,391	0,404	0,490	0,769	0,401	1,212	2,671
	세종특별자치시	0,000	0,000	0,000	0,000	0,252	0,000	0,732	0,000	0,000	0,000	0,172
	경기도	2,731	0,000	0,000	4,671	3,597	0,068	4,691	4,585	0,343	8,164	14,961
	강원도	1,309	0,961	0,535	0,608	1,509	2,057	4,727	0,766	2,518	0,537	7,245
	충청북도	1,893	0,862	0,117	1,858	1,252	1,607	2,447	0,923	1,681	2,364	2,241
	충청남도	1,233	0,618	2,356	1,229	0,830	0,527	1,359	0,347	3,465	1,817	8,619
	전라북도	1,012	0,936	1,211	3,217	1,937	2,858	2,693	0,371	1,671	0,849	3,796
전라남도	1,657	0,632	1,502	1,712	1,514	2,213	3,290	1,097	2,240	1,193	11,229	
경상북도	1,014	0,784	0,259	1,766	2,924	1,857	2,633	0,993	2,271	2,310	4,990	
경상남도	1,186	0,976	1,135	2,567	3,275	1,096	3,212	1,530	3,328	2,046	11,756	
제주도	0,277	0,197	0,646	0,503	1,115	1,318	0,525	0,209	0,190	0,042	2,171	
합계	22,933	12,098	21,943	31,178	27,264	36,265	40,517	23,721	37,242	30,860	82,963	
공간 미스 매치 개선 값	서울특별시	-7.831	-15.675	-7.525	-0.004	-8.881	-2.469	-8.967	-13.927	-10.650	-1.048	0.116
	부산광역시	-1.349	-2.121	-2.432	-0.652	-2.362	-2.197	-0.192	-1.210	-0.800	-4.438	-0.766
	대구광역시	-0.322	-0.537	-0.391	-1.207	-0.863	0.066	0.130	-0.067	-0.122	-0.899	0.000
	인천광역시	-0.515	-2.393	-2.465	0.859	0.592	-2.080	1.549	-2.766	-2.474	-2.798	-1.715
	광주광역시	-0.105	-0.125	0.332	0.311	-1.472	-1.204	-0.670	-0.350	-0.897	-0.754	-0.551
	대전광역시	-0.145	-0.187	-0.241	-0.139	1.749	1.506	0.000	-0.132	-2.325	-0.494	-1.006
	울산광역시	-0.200	-0.258	-0.920	0.000	-1.410	-0.225	-0.774	0.000	-0.946	-0.828	0.000
	세종특별자치시	-0.085	-0.231	-0.030	-0.258	-0.032	-0.169	0.000	-0.179	-0.108	-0.023	0.000
	경기도	-7.892	-12.165	-10.943	-4.930	-2.812	-9.733	-3.259	-7.495	-11.748	-12.349	-3.789
	강원도	0.000	-0.225	-0.182	-0.396	0.068	-0.037	-0.172	0.000	-0.175	-0.198	0.000
	충청북도	-0.141	-0.283	-1.114	-0.122	-0.096	0.249	-0.008	-0.031	-0.025	-1.030	0.000
	충청남도	-0.154	-0.311	-0.163	-0.271	-0.271	-0.247	0.000	-0.059	-0.174	-0.199	0.008
	전라북도	-0.426	-0.016	-0.044	-0.339	-0.320	0.019	-0.056	-0.391	-0.004	-1.149	0.000
전라남도	-0.306	-1.061	-1.774	-1.095	-0.333	-0.436	-0.023	-0.114	-1.385	-1.230	0.000	
경상북도	-0.629	-1.104	-1.711	-0.834	-0.198	-0.202	-0.197	-1.266	-0.486	-0.778	0.000	
경상남도	-1.122	-1.570	-0.251	-0.842	-0.473	-0.893	0.000	-0.785	-1.355	-3.557	0.000	
제주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합계	-21.222	-38.263	-29.856	-9.921	-17.115	-18.050	-12.638	-28.772	-33.674	-31.768	-7.703	

주1: 빨간색 음영은 지역노동시장권 형성 후, 전에 비해 오히려 공간미스매치가 악화된 직종-지역을 의미.

주2: 지역의 값이 0이 산출되는 것은 해당 시도의 값이 지역노동시장권 형성으로 인해 타 권역에 전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함.

자료: 고용행정통계, 구인구직/취업현황을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과 같다. 먼저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확정하는 경우, 공간적 미스매치 지수는 당초 44.1에서 22.9로 약 -21.3의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미스매치의 변화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서울(-7.8) 및 경기도(-7.9)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외에 부산, 대구, 인천 등의 감소도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심도시인 특·광역시와 주변의 광역도가 병합되는 과정에서 공간적 미스매치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중심도시의 공간적 미스매치 개선을 위해서는 주변 지역과의 적절한 기능적 연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준에 가장 큰 공간적 미스매치를 보였던 농림·어업직은 확정 전 90.6에서 약 -7.7 정도 감소된 82.9를 보이고 있어, 변화의 크기가 크지 않았다. 이는 앞서 농림·어업직의 지역노동시장권역이 비교적 단일시·군 위주로 확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가장 크게 공간적 미스매치가 개선된 경영·사무직은 당초 50.3에서 -38.3이 개선된 12.0로 나타나 지역노동시장권 확정 이후 가장 낮은 공간적 미스매치의 값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경영·사무직의 지역노동시장권 확정이 타 직종에 비해 상당히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큰 폭으로 공간적 미스매치가 개선된 설치·생산직의 경우 당초 62.6에서 -31.7이 개선된 30.9로 나타나고 있어 이 또한 비교적 효율적인 지역노동시장권 확정의 결과가 관찰된다. 가장 광역적인 지역노동시장권 확정 결과를 보였던 연구·기술직의 경우 확정 전 51.8의 공간적 미스매치 값을 보였으나, 확정 후 변화 폭이 -29.9로 최종적으로 21.9의 공간적 미스매치 값을 보였다.

이와 같이 모든 직종에서 지수 값의 변화는 총량의 크기 차이는 있으나, 지역노동시장을 확정함으로써 공간적 미스매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직종의 지역노동시장권역 확정은 개별 지역단위와 비교하여 오히려 공간적 미스매치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예술·방송직, 보건·의료직의 경우 대전, 대구, 인천 등에서의 공간적 미스매치는 지역노동시장권 확정 전에 비해 오히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

역노동시장권을 확정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미스매치가 오히려 커지는 지역은 실제 권역의 확정 구조가 구직-구인 매칭과 관련이 없게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권역으로 볼 수 있다.

##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실업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와 더불어, 구조적 실업 중에서도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지역노동시장의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실업을 크게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 구조적 실업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총량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019년 기준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은 전체 구직건수 대비 약 47.5%로 상당한 규모가 존재하였다. 반면,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가능성은 2019년 기준 전체 구직자 대비 약 8.8%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간적 미스매치는 구직자 대비 약 10%의 수준으로 수요부족 실업의 가능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공간적 미스매치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공간적 미스매치는 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과 같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전략으로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지역별로는 그 중요성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지역의 실업문제는 일자리의 문제만이 아닌 공간적인 정책 대안의 부재로 인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문제 해소에 있어 국토 및 지역적 사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직-구인의 공간적 미스매치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종별 지역노동시장권의 확정 및 각 지역노동시장권이 공간적인 구직-구인에 대한 불균등을 얼마나 해소하는지, 또한 이러한 효과가 지역별, 직종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확정된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공간적 미스매

치의 개선정도를 검토한 결과, 전국적인 미스매치 지수는 뚜렷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미스매치 개선이 미흡하거나 오히려 구직-구인의 불균등도를 심화시키는 지역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공간적 미스매치가 개선되는 주요 지역은 서울, 경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사무직, 설치·생산직 등 광역-중규모의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는 경우 그 개선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비록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미스매치 개선이 미흡하거나 오히려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역노동시장권역이 미스매치 개선의 효용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는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실업에 대한 상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해왔다.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고속노동력으로 인해 어떠한 지역은 구직난을 겪고 있으며, 또 다른 지역은 구인난을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 또한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력과 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단순히 '지역 불균형'이라는 현상으로 매몰시켜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조적 실업 중에서도 특히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우리가 정주하는 주거지와 근무하는 직장지와 공간적 불일치에 기인한다. 이는 사실상 공간을 구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측면의 장기적인 정책영역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창출'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같이 공간적 미스매치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가 낮은 이유는 일자리의 문제가 공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시각에 있다. 그간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소에 대해 일자리의 절대적인 수를 확장하는 정책과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구인과 구직의 공간 불균등 분포로 인해 유발되는 공간적 미스매치 실업은 보다 근본적인 영역에서 일자리의 문제점과 연계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실업이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기업과 노동자가 선호하는 공

간과 지역의 차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문제로 보고자 하였다. 즉, 일자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공간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단일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시의 광역화로 인한 지역 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공간적 미스매치 실업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공간을 매개로 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노동시장의 형성문제, 이의 기능과 한계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공간적 미스매치가 도시의 분화, 광역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산물이라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권역을 활성화 하는 것은 어떠한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구직자들은 현재의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개개인이 누리고 있는 우수한 정주환경을 누리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로 인해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자극적 단어가 난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른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거점'의 역할 증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지방의 도시가 지방거점이 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도시와 그 주변부의 도시는 전략적·기능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기능권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화과정을 겪는 직장밀집지와 주거밀집지역을 지역노동시장이라는 하나의 체계에서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주거밀집지역에서는 고차편의시설을 포함한 충분한 생활SOC의 확충이 필요한 반면, 주변부는 중심부와와의 기능적 연계를 위한 높은 수준의 접근성 인프라의 확충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 주

- 1) 국내의 자료 여건상 취업건수는 다소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행정통계 위크넷의 자료에서는 지역 내에서의 구직건수보다 높은 취업건수가 존재하는 등 취업건수 자료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함.

- 2) 여기서의 '구직가능건수(EP)'란 실제로 구직이 가능한 건수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구직자가 10명인데, 일자리가 5개면 구직가능건수는 5건이고, 구직자가 3명인데, 일자리가 10개면 구직가능건수는 3건으로 산출됨. 즉, 구직가능건수란 기업이 원하는 구인자수와 실제 구직자수 중 적은 값으로 산출됨.
- 3) 실제 지역에서 작동하는 것은 시·군·구 보다는 지역노동시장권역이기 때문에, 지역노동시장권의 공간적 미스매치값이 과연 기초 시·군·구에서의 공간적 미스매치를 '개선'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음. 본 장에서는 기초 시·군·구가 공간적 연계를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나타나는 공간적 미스매치를 실제 현실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역을 구성함으로써 완화되는 경우를 시·군·구의 공간적 미스매치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4) 자세한 내용은 Casado-Díaz, (2000)의 연구를 참고.
- 5) 구체적인 지역노동시장권역의 획정방법은 지면의 한계상 기술하지 않았으며, 이의 방법은 Coombes et al.(1986)의 논문을 참조.
- 6)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자료 갱신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되길 희망함.
- 7) 각각의 직종별 지역노동시장권에 대한 구체적인 획정결과는 지면의 한계상 담지 못했음.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19, 취업알선직업분류 2018 매뉴얼.
- 김을식, 2013, 지역별 일자리 미스매치의 특징과 추이, GRI 연구논총, 15(3), 263-286.
- 김을식·김군수·김태경·김점산·이수진, 2012, 한국의 고용 현황과 일자리 미스매치, 이슈&진단, 제49호.
- 김을식·최승희, 2009,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경기: 경기연구원.
- 김현재·최영준, 2015,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2015-8, 1-16.
- 박진희, 2005, 지역노동시장은 존재하는가? 노동리뷰 2005(10), 60-70.
- 유경준, 2001, 구조적 실업률의 추정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윤윤규·배기준·윤미례·이상호·최효미·김준영, 2012,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서울: 노동연구원.
- 이상호, 2011, 노동시장의 공간 미스매치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지역고용노동연구, 3(1), 1-28.
- 이상호, 2008, 지역노동시장권의 측정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8(4), 147-182.
- 이성균, 2015,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적 미스매치, 경제와사회 108, 137-165.
- 이정현, 2015, 구인구직의 공간적 미스매치 현상의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 장재호, 2010, "워크넷자료로 본 일자리 매칭: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매칭 효율성 높여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3(1), 35-56.
- 하태정, 2005, 기술혁신과 구조적 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Armstrong, H. and J. Taylor, 1981, "The Measurement of Different Types of Unemployment", The Economics of Unemployment in Britain.
- Borjas, J., 2015, 노동경제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Casado-Díaz, J.M., 2000, "Local Labour Areas in Spain: A case Study", Regional Studies, 34(9), pp. 843-856.
- Combes M. and Openshaw S., 1982, The use and definition of travel-to-work areas in Great Britain: Some comments, Regional Studies, 16(2), 141-149.
- Coombes M. et al., 1986, An efficient algorithm to generate official statistical reporting areas: the case of the 1984 Travel-to-Work Areas revision in Britain,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37, 943-953.
- Gobillon L, Selod H, Zenou Y. The mechanisms of spatial mismatch. Urban Studies, 2007, 44(12), 2401-2427.
- Ihlanfeldt, K.R., 2006, A Primer on Spatial Mismatch within Urban Labor Markets, In A Companion to Urban Economics, eds R.J. Arnott and D.P. McMillen.
- Jackman, R. and Roger, S., 1987, "Structural Unemploymen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29(1), pp.9-36.
- Kain J., 1968, Housing Segregation, Negro Employment, and Metropolitan Decentraliz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2(2), 175-197.
- Lever, W. F., 1979, Industry and Labour Markets

- in Great Britain. in F. E. I. Hamilton and G. Linge (eds.), *Spatial Analysis, Industry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London: Wiley.
- Lever, W. F., 1980, *The Operation of Local Labour Markets in Great Britain*,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44, 37-55.
- Li, T., Dodson, J., Goldie, X., 2021, Urban structure, commuting burden, and employment status of labour forces in an Australian city,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0.1016
- Lyons, T., & Ewing, R., 2021, Does transit moderate spatial mismatch? The effects of transit and compactness on regional economic outcomes. *Cities*, 113, 103160.
- Osberg, Lars & Zhengxi Lin, 2000, "How Much of Canada's Unemployment is Structural?" mimeo, Statistics Canada,
- Owen, D.W., and Green, A.E., 1989, *Labour Market Accounts for Travel-to-work Areas, 1981-1984*, *Regional Studies*, 23, 69-72.
- OECD, 2002, *Redefining Territories: The Functional Regions*.
- Patacchini E, Zenou Y., 2005, Spatial mismatch, transport mode and search decisions in England, *Journal of Urban Economics*, 58(1), 62-90.
- Smart M., 1974, Labour market areas: uses and definitions, *Progress in Planning*, 2, 239-353.
- Taylor BD, Ong PM., 1995, Spatial mismatch or automobile mismatch? An examination of race, residence and commuting in US metropolitan areas. *Urban Studies*, 32(9), 1453-1473.
- 고용행정통계, 구인구직/취업현황 ([https://eis.work.go.kr/sys01012.do?tranId=sys01012\\_00&menuId=041010010&autoRptSrch=Y](https://eis.work.go.kr/sys01012.do?tranId=sys01012_00&menuId=041010010&autoRptSrch=Y))
- MDIS,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하반기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New.do?curMenuNo=UI_POR_P9012))

계재신청 2023.10.20

심사일자 2023.12.13

계재확정 2023.12.13

주저자: 남기찬, 교신저자: 남기찬